

광주·전남 반도체 인재양성위원회 출범

특화단지 유치 박차...반도체 인재양성 지자체·대학·교육청 '맞손'



강기정 시장이 6일 오전 북구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광주·전남 반도체 인재양성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정성택 위원장(전남대 총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광주·전남이 각급 교육기관과 손을 맞잡고 반도체 인재양성에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6일 광주테크

노파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정성택 전남대 총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반도체 인재양성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지난 9월 27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반도체 산업육성 추진위원회를 가진 데 이어 두 번째다. 인재양성위원회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해 석박사급·학사급·실무급·창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인재양성 방안과 교육기관 간 협력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정성택 인재양성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반도체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미래의 먹거리, 반도체산업을 주도할 핵심 인재양성에 더욱 매진해 국가 산업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맞춤형 교육모형을 개발해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필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각 대학별·학과별로 흩어져 운영중인 커리큘럼을 한데 모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수진·교육시설·연구시설 등을 통합 운영하는 공동캠퍼스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반도체 인재양성 허브 구축 등 각종 공모사업에도 지자체·대학·교육청·기업 간 협력기반을 강화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조일상 기자

전남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조직위 출범

성공 개최 다짐...경제·문화예술 등 각계각층 한뜻 뭉쳐

전남도는 6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양대 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 준비에 돌입했다.

창립총회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과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각 유관기관과 단체는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성공 개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직위원회는 김영록 지사를 조직위원장으로 하고, 국회의원과 언론, 경제·금융, 문화예술, 체육, 직능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 138명으로 구성했다.

조직위는 '생명의 땅 전남에서 하나 되는 힘찬 대한민국'이라는 비

전 아래 '도민과 함께하는 화합, 공동, 희망 체전'을 목표로 전국체전 준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홍보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조와 자문역할을 한다.

김영록 지사는 "내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온 국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관광·문화·스포츠 대축제의 장이자, 화합과 감동의 멋진 무대가 되도록 총력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더 위대한 전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회 추진을 위해 1실 17부 79팀의 성공개최추진단을 구성하고 체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 /박종배 기자

광주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 내일 개관

마한 농경문화·생업 등 생활사 체험공간

영산강유역 마한역사문화권의 대표 유적인 광주 신창동 유적에 마한유적체험관이 문을 연다.

광주시는 오는 8일 마한유적체험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신창동 유적은 벼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과 생활·무덤 등 마한 사람들의 실상을 알려주는 복합농경유적으로, 학술적 중요성이 인정돼 1992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과 광주시가 국·시비 120여 억 원을 투입, 부지 1만2145

m²에 연면적 2259m²·지상 1층 2개 동 규모로 지었다. 상설체험실·교육실·세미나실·기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체험관은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 운영한다. 학부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신현대 광주역사민속박물관장은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이 광주지역 주요 역사문화자원인 마한역사문화재사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5년 간 140억원 투입 '빈집 1만채' 정비

도민 생활환경 개선 위해 대대적 빈집 정비 착수

전남도가 2023년부터 5년간 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해 빈집 1만채를 정비한다.

전남도는 대대적인 빈집 정비를 통해 주차장, 썬더, 씌지공원 등을 조성하는 도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전남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1년 집계 기준 전국 빈집은 6만5203채로 이 중 27.1%인 1만7648채가 전남에 소재한다.

이 때문에 빈집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 상위 10곳 중 6곳을 전남

시·군이 차지했을 정도다.

매년 시·군에서 20억원의 자체사업비를 들여 1400여채를 정비하는 등 최근 5년간 100억원을 투입해 7300여채를 정비했지만 역부족이다.

이에 전남도는 내년부터 5년 간 도비 42억원을 포함해 총 140억원을 들여 매년 2000채씩 총 1만채를 정비해 도민 주거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또 빈집 정비에 시·군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빈집 정비 실적 우수 3개 시·군을 선정해 추가사업비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정비대상은 도심지, 가로변 경관을 해치거나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이다.

정비 부지는 주민 편의 증진과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용지, 주차장, 썬더, 운동시설, 씌지공원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박종배 기자

'행복 전남' 메신저...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도, 전문성 강화·지원 확대...도민에게 힘 역할 '다짐'

전남도가 '행복 전남'을 이끄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내년에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복지기동대는 사회약계층의 일상 불편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6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성과 공유대회를 열고 도민에게 실질적 힘이 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도민에게 힘이 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22개 시·군, 297개 읍·면·동 복지기동대원과 협력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민선 7기 성과 공유를 시작으로 민선 8기 비전 선포,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 복지기동대원 다짐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행사에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보성군과 해남군 사례 발표를 통해 민선 7기 성과를 공유했다.

전남도는 민선 7기에 활발하게 추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민선 8기에는 기동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으뜸 행복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유공자 표창에선 복지기동대장 등 66명에게 전남도지사 표창을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경진대회 시상에선 '나눔꽃이 활짝핀 선조이의 보금자리'를 발표한 보성군이 대상을 받았다.

해남군은 '알코올 중독 극복, 새 인생을 펼쳐라'로 최우수상을, 무안군은 '내 보금자리~깨끗하게! 깔끔하게! 청결하게!'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종배 기자

본사사령

- ▶ 편집국 지역사회부 (고흥주제)
- 최혁민 의원면직
- 2022년 12월 1일자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 서비스부터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화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 비용 지원

저작권 상담

저작권 전반에 대한 실무상담 지원

저작권 육성지원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SW관리체계컨설팅

SW사용 실태진단 및 개선방향 컨설팅 지원

산업현장컨설팅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서비스 지원

QR코드로 신청 바로가기!

문의 : 061-280-7493 / pjy@jcia.or.kr